"올 가을 미술관 투어 떠나자"

가을걷이가 끝난 시골 작은 미술관에서 한가롭게 미술품을 감상하며, 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해 보자.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남지역 미술관들이 풍성한 전시회를 마련해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영암도기문화센터는 가을 정취와 더불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12월20일까지 '구림도기 복원과 미래 비전'이란 제목으로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구림도기(사적 제338호)는 통일신라시대 영암 구림마을에서 생산됐던 도자기를 일컫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도기의 예술성을 현대 도예에 접목시킨 강성곤, 박순관, 이희순, 장영필, 이태호, 김대웅씨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1-470-2764.

박수근 작 '여인과 소녀들'

도기에서 조각·현대미술까지 전남지역 미술관 전시회 풍성

최근 문을 연 보성 우종미술관도 오는 12월23일까지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조성면 대곡리에 자리 잡은 우종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발자취'를 주제로 박수근, 이중섭, 오지호, 이인성, 김환기, 천경자씨 등 근대 한국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표 작가들의 작품 33점을 전시한다. 박수근 '여인과 소녀들', 오지호 '풍경' 장욱진의 미발표작(제목 미상) 등 그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작품이 대거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문의 061-804-1094.

곡성옥과미술관은 오는 20일까지 '김해성·김영설 2인'전을 연다. 김영설씨의 도예 작품 60여 점과 서양화가 김해성씨의 숲을 묘사한 작품 3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또 오는 2009년 1월9일까지 최준호씨의 전각 작품과, 미술관 소장품인 성리대전목판각과 5천770점의 간찰(簡札) 등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옥과미술관 야외 조각 공원에서도 조광석, 최동원, 김상옥, 이재길씨 등이 자연을 소재로 빚은 50여 점의 조각품을 전시한다. 문의 061-363-7278.

함평잠월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중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함경락씨의 초대전을 연다. 함씨는 한국인 최초로 중국천진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국 미술계의 대가인 하가영(何家英) 교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문의 061-322-6710.

고흥남포미술관은 오는 18일까지 '미술관 일상의 즐거운 만남'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고근호, 김명우, 양운철, 이진상, 정현경, 국경수, 김민호, 정인선, 박인선, 조은애씨 등 23명이 참가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이 기간 동안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펜션을 대여해주고, 관람객 도슨트 체험, 찰흙놀이, 회화 교실 등도 함께 개최한다. 문의 061-832-0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일 영암도기문화센터에서 열린 '구림도기 복원과 미래비전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영암군청 제공〉

광주 여성 희망 페스티벌 열린다

5~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취업박람회·사진전 등 다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08광주여성희망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5~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9월 출범한 광주여성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취업·창업 박람회, 여성문제 대토론회, 여성 발전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여성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길잡이가 되어줄 '취업·창업 박람회'에서는 취업 전문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를 비롯해 국내 구인업체 100여곳이 참여, 구직 여성과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또 20개 부스에는 취업정보지원관, 유망전문직체험관 등이 따로 운영돼 재무컨설팅 프로그램, 직업 적성검사, 직업 모의 체험 등을 해볼 수 있으며 유방암 테스트 등 무료로 건강 검진도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사인회도 마련됐다.

5일 오후 2시30분 4층 컨벤션홀에서는 광주여성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광주여성희망포럼 대토론회'가 '광주 여성의 희망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춘근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장,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박인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상임대표가 각각 '한국 산업의 미래와 지역 여성경제활동' '지역 여성리더와 정치 세력화' '지역 여성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 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대한민국 여성 60년사 및 광주여성발전사 특별전'이 1층 로비에서 마련된다.

1950년대 광주 동명동 농장다리 철길 풍경.

건국 이후 여성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여성 60년사 특별전'을 비롯해 광주여성 연표와 통계 및 고 조아라 여사 특별전 등으로 구성된 '광주여성발전사 특별전'과 건국 이후 분야별 여성 1호 조형물 설치와 '빛과 여성 사진전'이 3개의 테마로 나뉘어 전시된다.

이밖에 희망포럼 회원들이 한국무용과 시낭송 등에 참여, 예술적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인 '광주여성문화마당'도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펼쳐진다.

한편 페스티벌 본행사가 열리기 전인 5일 오전 11시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는 지역 여성들의 종합취업지원센터 역할을 맡게 될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본부장 주경미) 개소식이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전·현대 발레' 한 자리서 감상

백조의 호수·레퀴엠 7·8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영애)이 고전 발레와 현대 창작 발레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7일 오후 7시30분, 8일 오후 5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부에서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 악마 로트바르트의 싸움이 주된 줄거리다.

이번 공연에서는 백조들이 군무 장면이 아름다운 2막을 선보일 예정. 한 명의 발레리나가 청순한 오데트 공주와 요염한 오딜 공주를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게 인상적이며 특히 흑조 오딜이 선보이는 32바퀴 연속 회전 장면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2부 무대에 오르는 '레퀴엠'은 이영애 단장이 새롭게 안무한 현대 발레로 고전발레의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칼 젠킨스의 곡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를 신체 언어로 표현해 냈다.

오윤환·조나경·공병태·송성호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랑 김윤식 학술대회

한국시인협회 14일 서울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으로 유명한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1903~1950·사진) 선생의 사상과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시인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랑 시인을 기리기 위해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김종길 명예교수의 '암흑의 시대에 있어서 시인의 길' 이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작품속에 반영된 저항의식(김영철 건국대 교수) ▲영랑시와 향토언어(김현자 이화여대 교수) ▲영랑시의 운율적 특성(조창환 아주대 교수) ▲영랑시의 계보학(이승원 서울여대 교수)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축하연에서는 이건청 한양대 명예교수와 시인 송수권, 이화은, 이경림씨 등이 영랑시를 낭송하며 국악과 무용 등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연작회 창작실내악곡 발표회

연작회 제38회 창작실내악곡 발표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향우·김준석·유영순·최수정·박은영·정유하·김진선씨가 다양한 실내악곡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바이올린 독주곡 'Lost i', 첼로 독주곡 '가을', 피아노 독주곡 'Norie'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인벤션', 신디사이저의 연주와 무용수의 춤이 어우러진 'Transformation', 현악 4중주곡 '공간'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